

“목포 선상 갈치낚시, 특화 관광상품으로”

평화광장 앞 매주 1000여명
불야성 이루며 축제장 방불
일회성 행사 탈피 하고
체계적 육성 여론 높아

목포 평화광장 앞바다에서 성행하고 있는 갈치낚시를 관광 상품으로 육성하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년 갈치 낚시를 찾는 관광객이 물리는 만큼 일회성 행사에 머물지 말고 체계적 관광객 유치 정책을 마련하고 투자·안전 대책을 마련해 특화 관광 자원으로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달 들어 목포 평화광장 앞바다를 찾아 갈치 낚시를 즐기는 관광객들이 매주 1000명에 달할 정도로 몰리면서 수는 집어등을 단 낚시 어선들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목포시는 앞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허가를 받아 낚시 어선 55척의 어업 행위를 오는 11월 30일까지 허용한 바 있다.

갈치 낚시가 본격화되면서 낚시어선에는 적당 10~20명의 강태공들이 자리 잡고 밤샘 은빛 갈치 낚시를 하고 있는데 갈치가 올라올 때마다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지는 등 밤바다가 축제장을 연상케 했다.

목포갈치낚시협회 등이 파악한 지난해 갈치 낚시 승선인원은 1만3177명으로, 이들이 낸 승선료(1인당 6만원)는 7억9000만원에 이른다. 승선료 외에 갈치 낚시를 하며 쓴 비용을 고려한 경제유발효과도 9억 3000만원(2016년 말 기준)에 달한다는



평화광장 앞바다가 갈치 낚시 어선들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한 명당 하루 평균 40~50마리의 은빛 갈치가 올라오면서 주말 낚시를 즐기러 온 여행객들만 평균 1000명에 이를 정도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시 등의 분석이다.

목포시 등은 올해 낚시 허가를 받은 어선이 지난해(39척)보다 늘어난 만큼 지역 경제 및 어민 소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낚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낚시협동조합을 구성하고 계절별, 시기별로 낚시대회를 개최하는 등 일회성 행사에 머물지 말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날 목포갈치낚시협회 회장은 “평화광장 앞바다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야간 갈치 낚시 명소로 자리매김했다”면서 “목

포가 해양관광 중심도시를 표방한 만큼 갈치낚시를 특화된 관광상품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항은 ‘항만법’과 ‘개항질서법’ 적용을 받는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선박의 안전한 통행에 위해 어로·낚시행위가 금지돼 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그러나 어업인 소득증대와 관광객들 볼거리 제공 등을 위해 목포해양·목포시 등과 협의를 거쳐 지난 2015년부터 3년째 한시적 운영을 허용해왔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삼학도 석탄부두 33년만에 군산으로 옮긴다

내년 이전...복원화 사업 탄력

목포 삼학도 석탄부두가 군산으로 옮긴다. 지난 1985년 준공된 이후 33년 만으로, 삼학도 복원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25일 목포시에 따르면 박용률 목포시장 은 최근 열린 목포시의회 제 3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영수 의원의 질의에 “군산에 건설 중인 유연탄 부두가 오는 10월 완공될 예정으로 목포해수청과 협의를 거쳐 내년 7월까지 석탄부두가 이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석탄부두 이전이 수차례 시도됐으나 무산되면서 석탄부두로 인한 피해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목포 삼학도에 소재한 석탄부두는 지난

1985년 준공돼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연간 30만t의 물량을 받아 화물열차로 처리하면서 한동안 서민들의 에너지 공급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석탄운반 철로로 인해 인근 동명동 주민들은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고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목포산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지만 번번이 무산됐었다.

삼학도 석탄부두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삼학도 복원화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 의원은 이와관련, “석탄부두가 이전되면 오토캠핑장 조성 등 호안수로 이용한 놀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고하도 리조트 건



삼학도 석탄부두 전경. 바람이 불면 인근 삼학도 중앙공원과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으로 석탄분진이 날아들어 피해가 심각하다. <목포시 제공>

설과 관련, “현재 고하도에 리조트를 건설하기 위해 3개 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전국을 대

으로 공개 공모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여수시 교육 경쟁력 향상 100억원 투입

1인당 지원액 29만여원으로 타 지자체보다 많아

글로벌 인재 양성 총력

여수시가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액 1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사업 외고 설립 무산으로 인한 교육 행정 불신을 잠재우고 학부모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수시는 교육과정 내실화 및 창의·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2018년 교육경비로 100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 2014년~2016년 90억원을 지원하던 데 올해부터 교육경비를 100억원으로 늘려 지원해왔다.

올해만 보더라도 ▲순천(63억) ▲광양(56억) ▲목포(12억) 등에 견줘 훨씬 많은 교육 경비를 투입해왔다.

1인당 지원액으로는 여수가 29만2209원으로, 목포(3만4786원)의 8배가 넘는다. 순천은 16만928원, 광양은 28만3071원 등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올 해 90개교(초등 50·중등 24·고등 15·여명학교 1)에 74억 2400만원을 지원했다. 여수시와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전교조, 교육전문가 등으로 결성된 민관협의체 ‘행복교육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한 금액은 창의·인성, 진로프로그램, 진학지도, 지역 교육자원 활성화 등 4개 분야에 26억을 투입했다.

내년에도 학교별로 미래 핵심역량 육성 분야를 대상으로 중점 투입키로 했고

■여수시 연도별 교육경비 지원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전년도 시세수입액	201.365	176.722	173.654	188.574
지원액(7%)	14.095	12.370	12.155	13.200
지원액	9.000	9.000	9.000	10.000

■전남 주요 지자체 지원현황 (2017년 기준)

구분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목포시
학생수(명)	34,222	39,148	19,783	34,497
교육경비(억)	100	63	56	12
1인당 지원액(원)	292,209	160,928	283,071	34,786

세부 계획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계획 수립,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기초학력 습득 ▲독서·토론수업 활성화 지원 등에,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에 중점 지원키로 했고 고교에서는 ▲전남 애프터 스쿨 ▲학생참여형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수시는 인재 유출을 막겠다며 외고 설립에 나섰다. 사실상 철회했고 여수교육지원청은 지역 중 3학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역 고교 홍보자료’를 발간하고 ‘내고장 학교 보내기 진학 설명회’를 여는 등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인간합을 쓰고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기관 1년 목포 영어도서관 이용자 10만명 넘어서

전남 서남권 최초 영어도서관인 목포영어도서관이 개관 1년 만에 이용자 10만 명을 넘어섰다.

24일 목포시에 따르면 8월말 현재 14만 293명이 목포영어도서관을 찾아 19만3619권을 열람하고 3만 3448권을 대출했다.

목포영어도서관은 독서 동아리 운영과 함께 영어체험교실, 화화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오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목포시와 인근지역 유아·초등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총 23개 영어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 추진한다.

영어도서관에 중점을 두었던 단어, 독서 프로그램을 비롯, 영어 의사소통능



목포영어도서관이 다양한 영어체험 프로그램으로 지역민들의 교육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목포시 제공>


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수준별 원어민 영어회화 수업 등도 진행된다.

영어체험교실의 경우 원어민 선생님과 공방·호텔·식당·마트·소방서·병원 등 새롭게 단장한 11개의 체험코너를 마련, 상황에 맞는 영어회화 표현을 익힐 수 있도록 배려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부모님도 만족하고 자녀들도 찬성하는
농지연금제도가
더욱 좋아졌습니다!

가입대상 확대

이자율 인하

월 지급액 증가

땅이 드리는 평생월금

부모님께 효도하는 농지연금

소유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 **평생연금보장** 임대를 통한 추가소득도 가능

상담문의 **1577-7770**

www.fplove.or.kr